

# 크릿 빠라못의 <탄차이렉>과 이광수의 <유정>의 비교연구

최 난 옥\*

## - 목 차 -

- I. 비교연구의 관점
- II. 저작배경의 비교
- III. 내용 및 갈등구조의 비교
- IV. 주제 및 사상의 비교
- V. 결론

## I. 비교연구의 관점

'비교연구란 어떤 학문연구에 있어서도 필요한 방법이며 특히 문학에 대한 비교없이는 귀납적 인식도 불가능함은 물론, 더욱이 비교없는 연구 결과는 곧잘 어처구니없는 독단과 고루한 주관을 내세우기 쉬운 것'(장덕순 1962, 24)이 일반적 현상이다.

젯따나 나카왓차라(1998, 9)는 "태국문학에 관하여 문학연구자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의식이 없는 상황하

---

\* 한국외국어대학교 태국어과

에서 어느 한 학파의 학설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여러 경험과 지식을 습득한 후 우리에게 좋은 방법을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다.”고 하여 비교연구 영역의 문을 개방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윤호병(1995, 230-231)은 ‘문학의 비평이론을 실제 문학작품에 적용하여 해당작품을 분석·해석·평가하는 방법은 많지만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연구한다면 문학과 문학, 문학과 철학, 문학과 정치·사회, 문학과 회화, 문학과 건축·조각, 문학과 음악으로 나누어 연구할 수 있다. 문학과 문학의 경우는 외국문학과 자국문학을 비교할 수도 있고 외국문학끼리 혹은 자국문학끼리 비교가능하다. 문학과 철학의 관계는 작품에 반영된 철학사상이라든가 시대조류 같은 것을 증점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문학과 정치·사회의 경우는 문학이 시대정신을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주목할 만한 영역이다. 이때 유의할 점은 문학작품 중심으로 비교해야지 자칫 문학작품을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시대정신이나 이데올로기 혹은 정치적인 측면만을 강조해서는 곤란하다. 문학과 예술분야와의 관계에 있어 회화나 건축·조각, 음악 같은 분야는 원시시대부터 문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전하여 왔다.’고 하여 보다 구체적인 비교연구 방법을 제시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 인용문은 태국과 한국의 문학에 대한 비교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그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필자에게는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는 듯한 내용이다. 외국문학과 자국문학에 대한 비교연구가 주로 영향과 수용관계를 밝히는 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 영향·수용관계는 고사하고 연구기준조차 없는 태국·한국 문학도 ‘연구가치를 찾기위한 영역 개방’이란 측면에서는 비교연구를 시도해 볼만하고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비교연구의 첫 대상작으로 크릿 쵸라못의 <탄차이렉>과 이광수의 <유정>을 택했다. 물론 비교의 기준을 명확히 밝히기는 어렵다. <탄차이렉>(1953)이 장편소설 <라이치윗>의 일부를 이루는 단편소설이고, <유정>(1933)은 장편소설에 속하며 발표시기가 차이가 나는 점 등 오히려 비교연구하기 어려운 장애 요소를 지적하기가 더 쉽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두작품의 주인공인 탄차이렉과 최석이 일종의 ‘희생양’이라는 점 때문에 대상작으로 삼았다. 구조적으로

사회적 희생양의 방랑과 죽음의 결말구조를 지닌 것이다.

〈탄차이렉〉의 내용은 주인공인 탄차이렉이 왕손의 신분에 걸맞는 대우를 못받고 일반인과의 생활에서 왕손이라는 신분이 오히려 방해요소로 작용하여 방콕을 떠나 자신의 신분을 모르는 곳으로 방랑하다가 죽음을 맞는다. 〈유정〉의 내용은 주인공인 최석이 중학교 교장의 신분이며 기혼자로서 오해로 빚어진 친구의 딸과의 스캔들에 시달리다가 방랑의 길을 떠나 죽음을 맞는다.

두작품은 공통적으로 고결한 신분의 두 주인공이 오히려 그 신분때문에 고통이 가중된채 방랑의 길을 헤메다가 죽음에 이르는데, 그 죽음이 비극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승고의 미'가 돋보인 걸작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비교연구를 하고자 한다. 주인공의 성격에 따라 갈등의 양상, 방랑의 여행구조, 죽음의 방법 등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두작품의 내용 및 갈등구조를 분석하고 주제 및 사상을 비교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태국인의 죽음에 대한 감정이나 죽음관을 보면 '슬픔, 영혼회귀, 해학' 등 다양하며, 특히 '악한자가 선한자보다 더 죽기가 어렵고 살아생전 부지런히 불전에 공덕을 많이 쌓으면 그 선행을 보상받기위해 예정보다 일찍 죽는다는 믿음이 오래전부터 있어온 점'(Saisaeng 1973, 239)은 〈탄차이렉〉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탄차이렉은 불교철학관인 늦든 빠르든간에 반드시 받게되어있는 '업의 법칙(끝행감)'에 따라 죽음을 맞이한다. 여기서 죽음은 생의 종말이 아니고 악한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만을 띄는 것도 아니다. 죽음은 선한자가 살아생전의 고통을 미리 마감하도록 돕는 의미도 있다.(Mantasut 1979, 205)

〈라이치윗〉의 서문에 대해 손튼 와일더의 〈짜판머라나(죽음의 다리)〉를 모방했다는 평을 두고 만파쉴(1979, 부록)은 종교적 주제는 세계적인 주제이며 이 작품은 분명 태국적인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본고에서는 〈라이치윗〉의 일부를 이루는 〈탄차이렉〉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위의 평은 논외로 한다.

한편 이광수의 문학은 대체로 불교·기독교 사상, 때로는 유교관 등이 혼재되어있다. 〈유정〉에 대해서는 '영(靈)의 구원을 모색하는 종교적 경향의 최초의 작품이 〈유정〉이다'(정비석 1968, 518), "〈유정〉과 〈사랑〉은 극기적이고

## 160 『동남아시아연구』 제7호 (1999)

자기희생적이고 정신적인 사랑을 그림으로써 종교적 인간상을 구현하였다”(구인환 1981, II-131)라는 말에서 공통적으로 기독교와 불교를 다 포괄할 수 있는 ‘종교적인 작품’으로 보았다. 김윤식(1986, 900-901)은 실제로 세상 사람들의 스캔들에 시달리던 춘원이 절망감에 빠진 끝에 종교와 이웃하여 쓴 첫작품이 〈유정〉이라 하였다. 한용환(1994, 124)은 “〈유정〉은 사회의 도덕적 환경에 희생당하는 인물을 그리고 있는 소설이다”고 하여 최석을 희생양으로 보았다. 결국 사회적 희생양이 되어 절망감에 빠진 인간이 갈 곳은 종교적 구도의 길인 것이다.

〈유정〉과 〈사랑〉을 비교하여 언급한 것을 보면 ‘〈유정〉은 〈사랑〉의 원형이며 〈사랑〉에서 더 감정이 순화되었다.’(정비석 1968, 523), ‘〈유정〉은 어둡고 은둔적인 고행의 삶, 〈사랑〉은 보다 건강하고 자기희생적 삶’(구인환 1981, II-130), ‘〈사랑〉의 인물은 화석화된 느낌, 〈유정〉의 인물들이 상황변화에 따라 보다 더 타당하게 반응한다’(한용환 1984, 23) 등이 있다. 위와 같은 평은 작가가 〈유정〉은 감각적 사랑의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 조절이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모색 끝에 주인공의 희생적 죽음으로 결말 처리를 한 것이라면, 〈사랑〉은 좀 무리가 가더라도 ‘주인물들의 공존’을 위해 감각적 사랑의 감정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택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의 목적은 〈탄차이렉〉과 〈유정〉을 주인공의 성격과 갈등구조에 맞춰 분석해보고 ‘희생양의 숭고한 죽음과 종교적 구원의식’이 담긴 종교문학임을 밝히는데 있다. 또한 작품분석과 더불어 작가의 생애와 시대상을 견주어 연구하여 작품이 전하는 의미를 더욱 확연히 하는데에 의의를 두고 있다.

## II. 저작 배경의 비교

### 1. 크릿 뿌라못

머.러.워. 크릿 뿌라못은 1911년 4월 20일 짜오프라야강 배위에서 태어나

서 1995년 10월 9일 오전 11시에 지병인 심장병과 당뇨병으로 숨을 거두었다. 부친 캄롭이 나컨싸완에서 핏싸누룩으로 발령받아 온 가족이 배를 타고 가던 도중에 어머니인 멬 땡 뿌라못이 그를 출산하였다. 당시 부친은 마침 랏 따나꼬신 왕조(1782-현재) 라마 5세(재위 1968-1910)의 왕비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왕비는 군대 시찰차 핏싸누룩에 가던 중이었다. 부친은 왕비께 새로 태어난 아기의 작명을 부탁하였고 그래서 '점점 힘이 세지는 자'라는 뜻의 '크릿'이란 이름을 갖게된다.

생전에 현인이자 대 천재로 불리운 크릿은 정치가이자 사상가였으며 작가, 음악가, 무용가, 연사 등 다방면에 걸친 재능의 소유자였다.

그는 다섯 형제 중에 막내인데 어릴때부터 누나 분랍 뿌라못이 공부를 가르쳐주었다. 6살때에 왕립 유치원인 왕랑학교에서 태국 전통문화를 익혔고, 모친이 민속음악 및 무용을 가르쳐주었다. 왕실학교인 쉰언꼴랍에서 6년간 중등과정을 마친후, 1926년 15살때에 영국유학길에 올랐다. 5년동안 Trent College에서 수학하고 나서 옥스퍼드대에서 정치·철학·경제학을 전공하여 학사학위를 받고나서 Queen's College에서도 학사학위를 받았다. 런던에서 공부하면서 런던태국학생모임에서 만드는 「싸막키싼」의 신문편집장으로 있었다.

1932년 태국 입헌혁명이 일어난 다음해인 1933년 22살때에 귀국하여 3년간 재무부 관료로 있다가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염증을 느껴 사임한후, 타나 칸싸얌깜마존(현 태국상업은행인 타나칸타이파넛의 전신)으로 자리를 옮겨 2년간 근무하였다.

1938년 27살때에 머.러.워. 팍프잉 텅야이와 결혼하여 아들 머.러. 링릿 뿌라못, 딸 머.러. 위쑤밋뜨라 뿌라못을 두었다. 그러나 1945년 말에 크릿이 일에 몰두한 나머지 늘 집을 비우자 이에 불만을 품은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여 결혼 7년만에 헤어지게 된다. 그후 아내는 외국인과 재혼을 하고 크릿은 계속 독신으로 지내지만, 두사람 사이의 우정관계는 지속되었다.

형인 쉰나 뿌라못이 1945년 수상직에 취임한 후 그도 정치에 입문하여 1946년에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973년 10월 14일 「쑤쑤뚜라」라고 부르는 태국 민주화 항쟁 이후 정치적 활동을 강화하였고, 1974년 「팍

## 162 『동남아시아연구』 제7호 (1999)

깃쌍콰(사회행동당)을 만들어 당수가 되었다. 1975년 3월 20일 수상직에 취임하여 1년 1개월 4일간 공직생활을 하였으며 1975년 6월 30일에는 1949년 중국 공산화로인해 태·중간의 국교단절후 현직 수상으로는 처음으로 북경을 방문한다.

수상직에서 물러난 후에는 정치일선에서 떠나 「싸얌랏」신문사에 몸담고서 정치와 사회에 관한 비판적인 글을 썼는데 그의 글에 대한 독자의 관심도는 매우 높았다.

크릿 빠라못이 문단계에 발을 들여놓은 이유는 정계에 입문한 이후 타락한 금권정치에 대한 환멸과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안위는 생각않고 자신들의 급료인상을 위해 법개정하는 등 부패한 정신에 실망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문필활동은 40세를 전후로하여 시작했으며 「싸얌랏」신문, 「차우끄룽」월간지, 「쌌다위짚」주간논평지 등을 창간, 발행하고 신문사 사장 겸 편집인, 논설주간을 역임하였다. 1950년 6월 25일 창간된 「싸얌랏」일간지에 “오늘의 태국은 정치사회적으로 왜곡되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문으로 사회를 올바르게 선도합시다. 싸얌랏 신문을 국가의 양심으로 만들어 봅시다.” 라고 호소하였다. 그의 특유의 재담과 예리한 정치논평으로 이 신문은 창간되자마자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으며, 그후 계속해서 태국 지성인들이 애독하는 국내 유일의 고급신문이었다. 「싸얌랏」신문을 주 무대로 하여 정치해설, 사회비평 및 계몽적 성격을 띤 문학작품을 썼다. 칼럼인 「프언년」은 이 신문의 5면에 매일 게재되었는데 다수의 독자를 형성하였다. 이 계몽기사는 태국 국민의 삶과 가치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대다수 작품은 연재물 형식으로 게재되었고 거의 모든 장르에 걸쳐 150여 편의 작품을 남겼다. 태국 대하 역사소설로서 불멸의 금자탑으로 불리는 <씨팬딘>(1950), 불교의 운명론과 윤회사상을 담은 <라이치윗>(1953), 공산주의와 휴머니즘 세계를 그린 <파이댕>(1954)은 대표적 3부작으로 꼽힌다. 1954년 중국의 <삼국지>를 번역해 내었고, 수필집 『껌렉 파솨머니』, 『후영마한눔』을 발표하였다. 1955년에는 캄보디아 여행기 『톡 카텐』을, 1957년에는 황태후의 일생을 그린 『쑤씨타이하오』를 냈다. 1961년 3회에 걸친 일본방문 후에 그 견문을 토대로 일본인상기 『착이뿐』을 썼는데 이에는 일본의 고도성

장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의 폐해를 정확히 짚어내었다. 1962년에는 세계여행을 통해 얻은 각 나라의 풍물, 풍속, 습관 등을 소개한 『록쭈언뚜어 쟁뽀』을 발표했다. 1965년 미국 헐리우드를 방문한 후 헐리우드 환상의 도시라는 『므엉마야』를 냈고, 1967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삶과 종교, 생활방식 및 가치관을 그린 『이우』를 냈다. 1971년 4월 20일 자신의 환갑기념식에서 집안가계도를 설명한 『끄롱끄라독나이뚜』를 나누어 주었는데, 자신의 가계가 현 왕조의 시조인 라마 1세의 왕가 혈통을 이어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행동당 당수와 태국 수상을 역임했고, 권위있는 일간지 「싸얌랏」의 주간을 맡으면서, 보수적 개혁주의자의 위치에서 군부독재를 일관되게 비판해왔다.

또한 문학활동을 통하여 태국 전통적 가치 체계를 일반 대중에게 심어주고자 하였다. 자신의 체험을 토대로 하여 문학실천에 앞장 선 계몽작가였다. 불교적인 삶에 순응하는 종교적 가치관을 대중에게 심어주었다. 기존의 작품들이 가치관을 혼란을 야기시키고 단지 쾌락, 언어유희, 구태의연한 전통의 담보상태 및 사상적 설명만을 강조하던 것과는 달리 크릿 뿌라뭇은 선악의 경계를 초월한 삶, 즉 불교의 업보와 윤회 속에 순응하는 인생관을 묘사하여 불교적 지혜의 자각이 현실생활을 반영한다는 사상을 폈다.

그러나 일부 비평가들은 그의 문학세계에서 그려내고 있는 태국 전통적 가치관 일반대중의 의식세계를 대변하기 보다는, 군주정치에 밀착된 귀족정치의 향수에 젖어있는 태국 지배계층의 의식을 대변한 것이라는 비판도 가하였다.

이처럼 정치가이자 사회비평가, 풍속 평론가, 사업가, 소설가, 싸얌랏 신문사 社主 겸 편집논설가 등 다양한 활동을 한 것에 걸맞게 그에 대한 호칭도 다양하다. ‘지혜주머니’, ‘산 사전’, ‘배짱있는 인간’, ‘直言居士’ 등 좋은 호칭도 있고, 반면 ‘독설가’, ‘지식파산자’ 등 호된 비난조의 호칭도 있다.(박효용 1989, 9-11; 만따쑈 1979, 부록1-70; 신근혜 1997, 71-73; Manivat 1983, 11-26) 시대적 요청을 외면하지 않고 체험을 통한 현실에 앞장 선 작가로서 낡은 사고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민족문화와 정신세계를 확립하고자 한 그의 노력이 태국 문학계에 미친 영향은 지대했다.

본고에서 다루는 <탄차이렉>의 창작배경은 전해지지 않지만 크릿 뿌라뭇은 <탄차이렉>이 포함된 <라이치윗>에 있는 11편의 창작경위를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라이치윗>은 1952년에 「차우끄룽」월간지에 처음 게재되기 시작했다. 그전에 싸얌랏 신문사 동료들과 「방쎄」에서 휴양하려고 「방콕」에서 함께 차를 타고 떠난 적이 있었다. 그때에는 「방콕」에서 「방쎄」으로 가는 도로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길을 돌아 우회하여 장시간 여행을 하였다. 차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여러 가지 이야기 꽃을 피우게 되었고, 도중에 일행은 대형버스의 사고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다. 버스는 길에 전복됐고 중사상자가 많았다. 그때 어느 한 작가가 “저 차에 타고 있던 사상자는 출신, 성별, 직업을 달리한 채 지금까지 각각의 인생을 살아왔는데 어찌하여 같은 재난을 당하게 되었을까?” 라고 문제제기를 하였다. 한참 토론하다가 한번 가상의 사고를 발단으로 삼아 희생자들의 인생을 회상하는 식으로 소설을 만들어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모두 동의하여 「차우끄룽」지에 매월 한 명의 작가가 1편씩 연재하기로 하고, 발단이 되는 사고의 설정과 제1편은 내가 맡았다. 이어서 다른 작가들이 차례로 집필하여 한편의 책으로 엮어보자고 하였다. 「방콕」에 돌아온 후 나는 소설 <라이치윗>의 구상을 배가 전복되어 익사한 사람이 浮上하는 상황을 설정한 다음에 제1편으로 <짜오러이>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짜오러이가 반편에서 배가 전복되는 바람에 익사하는 것으로 결말을 맺었다. <짜오러이>가 「차우끄룽」지에 게재된 뒤 후속편을 쓰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다양한 생애 중에 한 생애만 세상에 내놓고 말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머지 다른 생애도 생각나는 대로 써서 게재하여 마지막 편인 <머썰>까지 끝을 맺었다.

이상의 창작동기를 밝히며 작가는 <라이치윗>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재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자신이 알고 지내던 주변사람들의 삶을 참고로 하여 이야기를 엮어내었다고 하였다.(박효용 1989, 26-27; 만따쑈 1979, 137)

## 2. 이광수

춘원 이광수는 1892년 2월 1일 평안북도 정주군 갈산면 익성동에서 진주



이씨의 문중에서 태어나서 1950년 6·25사변이 발발하여 그해 7월 12일 남북분단의 생사는 전해지지 않는다. 부친 이종원은 마흔 두 살, 재취로 시집은 모친은 스무 두 살 때 춘원은 태어났다. 어느 초여름날 부친이 평상에 누워 잠들었을 때, 노승이 거울을 주고 가는 꿈을 꾸던 뒤에 태기가 있었다고 하여 어릴 때 이름은 보경(혹은 수경)이라고 불렀다.

조부 이건규는 풍신 좋고 기운 센 풍류의 남아로, 기생첩을 얻어 술집을 내어 술을 마셨고, 부친도 과거시험에 낙방하여 술이나 마시는 바람에 집안이 차차 기울어져 춘원의 어린 시절은 몹시 가난했다. 열한 살 때 부친이 콜레라로 세상을 떠나고 아흐레만에 모친도 세상을 떠나서 춘원은 누이 둘을 거느린 천애 고아가 되었다.

하루는 춘원의 조부는 물론이요 부친과도 친분이 있는 동학의 대접주인 서병달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춘원을 데리고 가서 훈련시킨 다음 박대령에게 데리고 갔다. 춘원은 이 집에서 한 식구처럼 지내며 동학활동을 도왔다. 그는 사회의 첫발을 동학에 내디뎠고, 이 종교활동이 뒷날 그의 생애와 문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일제의 침략이 날로 심해지자, 도처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났고 그 주동이 동학이었다. 동학가담자들이 잡혀가자 춘원은 정주땅을 떠나 그길로 평양을 거쳐 서울로 왔다. 마침 천도교에서 일본유학생을 모집하는 것을 보고 합격하여 1906년 동경으로 건너가 대성중학에 입학하였다. 그후 명치학원에 다니면서 야마사끼라는 일본학생을 사귀어 그가 빌려준 톨스토이 관계 서적을 통해 톨스토이를 알게 되었다.

1908년 8월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3년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때 부친의 친구였던 백노인의 부탁으로 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이가 바로 춘원의 첫 부인인 백혜순으로 1921년 합의 이혼을 했다.

1910년 춘원은 이승훈의 초청으로 고향에 있는 오산학교 교원으로 부임했다. 1914년 육당 최남선이 「청춘」지를 낸후, 춘원은 육당이 소개한 인촌 김성수의 권유로 1915년 와세다대학 철학과에 입학했다.

1917년 1월 1일부터 매일신보에 〈무정〉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무정〉은 춘원의 출세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 근대문학의 최초의 장편소설로 유명하다.

166 『동남아시아연구』 제7호 (1999)

또한 1917년부터 <개척자>를 썼다. 이무렵 이광수의 생을 바꿔놓는 허영숙을 만난다. 그녀의 도움으로 폐병치료를 받고 어느날은 연기에 질식되어 쓰러져 있는 춘원을 그녀가 발견하여 생명을 구해주었다. 그뒤 본부인과 합의이혼을 하고 영숙과 재혼을 한다.

1922년 5월 「개벽」에 “민족개조론”을 발표한뒤 춘원은 동포로부터 미움을 받게되었고, 허영숙도 갖은 수모를 다 겪었다. <재생>(1924)에 이어 1932년에는 농촌의식을 대변하는<흙>을 동아일보에 발표하였다. 그후 조선일보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1933년 <유정>을 조선일보에 연재했다.

1937년에는 동우회사건으로인해 투옥되어 7년 언도를 받았다. 이때의 감옥생활을 토대로 하여 쓴 것이 <무명>(1939)이다.

1941년 12월 8일 태평양 전쟁이 벌어져 일제의 탄압이 절정에 달했을 때, 춘원은 香山光郎이라고 창씨를 하고 일문으로 글을 쓰며, 학병권유의 연설을 하는 등 친일행위를 했다. 배신자, 민족반역자라는 말에 춘원은 민족을 위해 친일을 한 것이라고 하였다.

해방후 사능의 봉선사에 머물면서 “돌베개” 등 민족애의 사상을 썼다. 1949년 1월 1일 춘원은 반민법에 따라 구금되었고, 곧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 그때 아들 영근은 혈서를 써서 부친 춘원을 용서해달라고 탄원하였고 이로인해 춘원은 병보석으로 출감한다. 1950년 6·25사변이 발발하고 7월 12일 공산군에게 납북된 뒤 그후 정확한 생사는 전해지지 않는다.(구인환 1983, 307-324)

춘원(1968b, 285)은 <유정>의 창작동기에 대해 사람의 힘 가운데 가장 힘있는 ‘인정’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싶어서 “22,3세의 도무지 아무 것에도 구속을 받지 않는 열정에 타는 어린시절로 돌아가서 열정이 쏟는대로 쓰려고 한다”고 했다. 김윤식(1986, 898-900)은 이에 덧붙여 젊었을 때 체험한 시베리아 방랑(1914년의 일 1933년 6월에도 만주여행함)의 체험을 되살리기 위한 것이 표층적인 동기이고, 심층적 동기는 아내와의 갈등, 세상 사람들의 스캔들에 대한 절망, 동우회운동에 대한 회의 등일 것이라 하였다. <유정>은 춘원의 당시 내면풍경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전처 소생의 진근으로인해 허영숙과 불화를 빚은 아픔을 <유정>에서 최석이 남정임 때문에 아내와 불화를

빛는 것으로 그렸다. 절망 속에서 허무를 느끼고 종교와 이웃하여 쓴 첫작품이 〈유정〉이라 하였다.

### III. 내용 및 갈등구조의 비교

#### 1. 〈탄차이렉〉

〈탄차이렉〉이 포함된 장편소설 〈라이치윗〉을 구성하는 각 11편의 등장인물이 처음에 정기여객선의 침몰로 인해 비극적 역사사고를 당하게 되는 배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격렬한 폭풍우가 있던 밤, 승객을 가득 싣고 「반편」에서 출발한 배는 비바람 소리와 함께 솟아오르는 파도를 가르며 곧장 「방콕」으로 향해하고 있었다. 밤의 장막 속에서 짙은 암흑만이 주위를 싸고 돌 뿐, 출항시 들리던 승객들의 대화도 차츰 줄어들고 이제 들리는 것은 비바람 소리와 배가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엔진 소리뿐이었다. 한 줄기 광풍이 세차게 배의 중심부를 강타한 후 갑자기 사람들의 비명소리, 놀란 아이의 울음 소리에 잠들었던 사람들은 모두 깨어났다.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선체가 기울어지는 반대 방향으로 내달았다. 하중을 견디다 못한 배는 순식간에 반대쪽으로 기울어졌다. 아우성 소리, 서로를 찾고, 부르짖는 처절한 비명 소리가 어둠 한가운데서 터져 나왔으나 그것도 잠시뿐, 물의 흐름에 멀리 떠내려가 사라지고 남은 것은 고요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밤이 새고 태양이 밝은 빛을 던지는 아침, 나뭇잎과 풀숲에 남아있는 빗방울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눈물의 흔적이 남아있는채 미소짓는 어린아이처럼, 자연은 간밤의 분노를 잊은 듯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 간밤의 희생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달려온 인근 마을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처참한 광경에 잠시 넋을 놓았다.

제방위에는 아침 햇빛을 받으며 지난 밤의 역사체가 나란히 놓여졌다. 어느

시신도 손상되지 않고 마치 잠자고 있는 것 같았다. 이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웃고, 울고, 사랑하며 지내던 사람들이었다. 각자의 인생을 살아 온 그들은 시각과 장소를 같이하여 함께 종말을 맞이하였다.

이 비극적인 사고로인해 11명의 승객들이 “익사라는 비극적 죽음을 맞이하고,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각, 동일한 원인으로 익사라는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은 무엇때문인가?” (크릿 브라뎀 1986, 서문)라는 점을 해명하고자 각 사람의 생전의 생활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하고 그들 인생의 흔적을 되돌아 봄으로써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식으로 <라이치윗>은 전개된다.

이들 11명에 관한 11편의 이야기 중에서 네 번째에 나오는 <탄차이렉>의 내용을 보자.

탄차이렉은 이름이 없다. 50년전 모친이 탄차이렉을 임신한지 8개월 만에 부친인 대군이 타계하는 바람에 그가 태어났을 때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모친도 당시 나이가 너무 어려 사리분별력이 없었다. 출생 신고도 안되어있어 나라에서 주는 녹봉도 받지 못했다. 그러나 호칭은 ‘멈짜오 차이렉’<sup>1)</sup>이라고 해도 나무라는 사람도 없었고 궁궐출입도 가능하였다.

렉은 너댓살될때까지도 부친이 입식관 속에서 답답해서 어떻게 지내나 하는 생각을 할뿐 부친이 타계한줄 몰랐다. 어느날 모친은 흰 상복을 준비하며 부친은 이미 돌아가셨으며 내일 화장식을 거행한다고 일러준다.

화장식날은 많은 형님들과 그들의 모친이 모였다. 그중에 나이가 가장 어린 렉의 모친이 가장 쉽게 울다가 큰형으로부터 눈총을 받는다.

그날이후 렉과 모친 그리고 다른 많은 형들이 궁을 떠나야 했다. 부친이 살아 생전 많은 가족을 자신의 신분에 맞춰 부양하느라 많은 빚을 남긴 바람에 궁은 국고에 귀속되어 더이상 머물수가 없게 되었다.

1) 태국 왕족은 왕자 등이 프라운짜오에 해당된다. 즉 프라운짜오-멈짜오(머.쩌.)-멈랏차웁(머.러.워.)-멈루엥(머.러)까지가 왕족이고 그 이하는 평민이다. 멈짜오까지 왕실용어를 쓴다. 차이는 남자, 렉은 작다라는 뜻으로 차이렉하면 작은 남자, 소년을 뜻한다. 탄차이렉에서 렉만 이름으로 보면 탄차이는 멈짜오까지의 왕족에게 쓰는 왕실용어이다. 반면 차이렉을 이름으로 생각하면 탄은 쿤(-님)보다 더 높임말이다.

렉과 모친은 외가댁에 가서 먼친척뻘되는 손녀와 같이 지내는 외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렉은 사원에서 교육을 받게되는데 그곳 교사가 '멈짜오 차이렉'라고 부르며 늘 왕실 용어를 썼다. 동급생들은 교사가 그럴 때마다 렉을 쳐다보며 마치 이상한 물건을 보듯 하였다. 친구들은 렉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왕실용어를 정확히 몰라 틀리게 말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이다. 렉은 교사가 자신에게 왕실용어를 쓰는게 싫어 학교에도 가기 싫어하고 늘 외톨이 신세였다.

분솨아저씨는 모친을 자주 찾아왔다. 그는 올때마다 선물꾸러미를 들고와서 렉에게 주었다. 어느날 대화 중에 모친이 흐느껴 울었다. 모친을 달래다가 일어나 돌아가는 그를 렉이 배웅하자 껴안으며 자신은 이제 오지 않을 거라며 훌쩍훌쩍 성장해서 모친의 의지처가 되라고 하였다. 모친은 그날이후 몸치장에 신경을 쓰지 않고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는 날이 많았다.

어느날 밤 렉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아직 잠들지 않았을 때, 모친과 외할머니의 대화 소리가 들렸다. 그때야 비로소 분솨아저씨와 모친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며, 모친은 렉 때문에 아저씨의 청혼을 거절한 것을 알게되었다. 모친은 왕손인 렉의 명예를 지키고자 평생 혼자 살 결심을 한 것이었다.

얼마후 모친은 몸져 눕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모친과 외할머니가 만든 과자를 팔며 생계 유지를 돕던 손녀가 귀가하지 않았다. 외할머니의 하소연에 눈물을 흘리던 모친에게 렉은 다가가 자신이 과자를 팔러 다닐테니 걱정말라고 하였다. 모친은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렉을 껴안으며 차라리 굶어 죽는 것이 낫다며 그런 말은 다시는 입밖에도 내지말고 언제나 왕족의 혈통임을 잊지말라고 했다.

어느날 분솨아저씨가 방문하였다. 그동안 시골을 다니며 장사를 하다가 어떤 예감이 들었는지 찾아 온 것이었다. 아저씨는 모친을 의사에게 보이며 병구완을 하였으나 이미 너무 늦어 결국 모친은 렉을 부탁하며 숨을 거두었다. 외할머니도 돌아가신후 아저씨는 렉을 데리고 가서 공부를 시키고 사무직에 취직시켰다. 렉은 아저씨를 따라다니며 장사를 하고싶다고 했으나 아저씨 역시 모친과 마찬가지로 왕족임을 상기시킬 뿐이었다.

렉은 걸어서 관청에 출근하였다. 도중에 있는 상점에 늘 앉아있는 한 해맑

은 용모의 처녀에게 마음이 갔다. 어느날 용기를 내어 그 상점에 들러 담배를 사면서 타원이라고 부르는 그 처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상점주인인 타원의 부모도 이들의 교제를 허락해 주었다. 렉은 처음으로 허물없이 이들과 사귀며 행복을 느꼈다. 타원에게 사랑을 고백하던 날 렉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타원은 렉에게 가난은 걱정말며 부모님도 지침금을 많이 요구하지 않을거라고 위로하며, 관습대로 웃어른을 보내 청혼하라고 하였다.

렉은 분솜아저씨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고 청혼하러 가줄 것을 부탁하였다. 아저씨는 흔쾌히 승낙하며 타원을 '멤'2) 이라고 지칭하는 말에 렉은 일말의 불안을 느낀다. 그것은 마치 아내가 아니라 시중드는 여자를 말하는 듯 했다. 렉에게는 일생의 반려자가 필요했던 것이었다.

다음날 퇴근길에 상점에 들렀더니, 타원의 부친이 렉에게 왕실용어를 쓰느라 애를 썼다. 타원 역시 왕족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것은 렉이 바라는 바가 아니었다. 타원은 자신은 왕족의 아내가 되는 훈련을 받아오지 않았고, 더구나 가난한 왕족인 것을 남들이 알면 자신을 조롱할 것이 두렵다며 청혼을 거절했다.

그날 이후 렉은 절망의 나날을 보냈다. 직장에서도 상사보다 신분이 더 높기 때문에 상사는 렉을 불러다 일을 시키지 않았다. 상사의 집안일에 다른 동료들은 모두 가서 거들며 상사에게 잘 보이려 하였지만 렉은 따라 갈 수가 없었다. 만약 가면 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대접하느라 분주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다.

분솜아저씨가 죽으면서 상속재산으로 쭈판부리시 짜오젯군 방따논면에 있는 논을 렉에게 남겼다. 렉은 이것을 기회로 시골에 가서 모르는 사람들과 새로운 생활을 하였다. 렉이 말도 없이 직장에서 사라진지 한달이 넘었어도 눈치채는 사람이 없었다. 있을때도 사무실의 한 낡은 장식품외에는 달리 취급되지 않았고 누구도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렉은 쭈판부리시의 방따논면에서 주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다.

2) 멤은 멤만을 쓸때 아내라는 뜻과, 왕실용어로서 왕손인 멤짜오의 아내까지 이름 앞에 붙여 멤-라고 부르는 등 두가지의 의미가 있다.

‘막카나옥’<sup>3)</sup>이 죽은 뒤에는 주민들은 렉을 그 자리에 추천했고, 촌장이 죽자 또 렉을 촌장으로 추대하였다. 렉이 도와주지 못할 일이 동네에는 없었다. 고아를 데려다가 기르기도 하였다. 누군가 가족관계를 물으면 렉은 이 동네 사람 모두가 자기 가족이라고 밝은 목소리로 답하였다.

어느날 군에 차관보가 시찰차 내려온다며 각 촌장들은 모두 나와서 환영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렉촌장도 그 대열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배에서 내려 군수와 악수를 나누는 차관보의 얼굴을 보고 렉은 그만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 차관보는 렉을 알아보고는 “나라마님, 언제부터 여기 계셨습니까? 어이구 소인은 못뵈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소인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소인 이름은 썸입니다. 나라마님과 일한 적이 있지요” (크릿 뿌라못 1986, 160) 라고 말하였다.

그 한마디에 렉촌장은 죽고, 탄차이렉이 다시 부활하였다. 렉은 더 이상 시골에 머물 이유가 없어졌다. 앞으로의 삶이 다시 쓸쓸하리라 예상하였다. 재산을 정리하고 방콕행 배를 타고자 반편으로 향하였다. 렉은 배안에서 모르는 사람들 틈에 꼭 끼어 앉아 있었다. 칠흑같은 밤보다 더 어두운 앞날을 생각하였다. 폭풍우가 거세게 몰아치고 배는 침몰하였다. 다음날 강둑에 놓인 11구의 시신가운데 미소짓고 있는 렉의 시신을 보고 누군가가 “이 노인은 외지에서 왔나봐. 물어봐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크릿 뿌라못 1986, 161) 라고 말하였다.

구조를 보면 〈라이치윳〉의 첫장에는 지난밤 폭풍우로 배가 침몰되고 익사체로 발견된 강둑에 놓인 11구의 시신을 묘사하였다. 그리고나서 한 편에 한 명씩 과거의 삶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탄차이렉〉은 네 번째에 소개되었다. 처음에 탄차이렉이 이름이 없다는 점,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50년전 그의 탄생을 전후한 사연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회상하는 식의 피드백 기법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썼다. 이미 주인공의 죽음이라는 결과를 놓고 과거사를 추적하는 이야기는 이러한 전지적 시점의 서술양식이 효과적이다.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우울한 분위기를

3) 막카나옥은 길안내자, 선도자라는 뜻으로 사원에서 보시나 자선을 할 때 인도해주는 사람으로 덕이 있는 사람이 말한다.

띠고 주인공 렉의 성격도 이에 걸맞게 감정이 풍부하고 눈물이 많다.

렉은 태어나기도 전에 부친을 잃어 유복자가 된 점 등 탄생부터 그의 삶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한다. 이름조차 지어주는 사람이 없고 출생신고도 안돼서 녹봉도 받지 못했다. 더구나 부친인 대군이 살아 생전 빚을 얻어서라도 자신의 신분엔 걸맞는 삶을 산 탓으로 인해 삶의 터전마저 잃고 외가댁에 얹혀 살게 되는 등 렉은 왕손으로 태어나서 득을 본 것이 없다.

가난한 외가살이에도 모친은 여전히 왕가 혈통의 아들을 둔 사실을 잊지 않고 명예를 고수하며 재혼도 마다한다. 더구나 렉이 가난한 살림을 보다못해 자신이 장사를 해서 가게를 돕겠다고 하지만 모친은 “탄차이는 왕족이야... 보통 아이들 처럼 나가서 과자를 팔 수가 없어. 탄차이가 나가서 그런 일을 하게 하느니 엄마는 차라리 굶어 죽는게 더 나아” (크릿 뿌라못 1986, 141) 라고 말한다.

이처럼 부친에 이어 모친까지 체통을 고수하는 성격으로인해 렉은 궁핍한 생활을 해도 아무런 대처도 못한 채 그저 살아있는 인형에 불과했다. 그러나 정은 많아 모친을 동정하며 돕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왕족임을 상기시키는 모친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다. 렉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그저 순응할 뿐 현실의 어려움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늘 외로움에 떨며 외톨이로 지냈다.

이러한 출생 배경과 우유부단한 성격은 렉이 자신의 앞에 놓인 사건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과 잘 맞아 떨어진다. 자신의 신분을 모르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즐기고, 남에 대한 배려만 할 뿐 자신의 감정은 억누른다. 이는 현실을 애써 외면한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얻는 기쁨일 뿐이다. 그리고 기쁨을 맛본 뒤에 오는 슬픔은 더욱 크고 무거웠다. 렉이 처음 사랑을 느낀 여자가, 가난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녀가 렉의 신분을 알고나서 한 말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렉이 그전부터 서로간에 이해가 있었음을 상기시키자 타원은 그 이해는 근본을 잘 모른 상태에서 비롯된 이해라고 하였다. 그때는 렉이 왕족인 것을 몰랐고, 자신은 왕족의 아내가 되는 훈련을 받지않아서 두렵다고 하였다.

“나는 왕족이라도 보통 사람들처럼 살아요. 난 다른 왕족들처럼 부자가 아니에요.” 렉은 타원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생각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타원



은 말하기를 “만약 그렇다면 더 힘들지요. 만약 사람들이 소저가 나리님의 아내라는 것을 아는데 그런데도 아무런 변화없이 예전처럼 지낸다면 그들은 비웃으며 조롱할 것입니다.” (크릿 뿌라못 1986, 154)

렉이 분썬아저씨로부터 눈을 상속받고나서 방콕을 떠나 눈이 있는 시골로 가서 잘 지내다가 자신의 신분이 알려지자 다시 방콕으로 향하는 여정, 즉 ‘방콕→방따녹→방콕’으로 이어지는 것은 원점회귀 여행에 해당된다. 이런 여행코스 역시 사람을 그리워하고 정이 많은 렉의 성격과 일치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타개하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반복적인 삶을 되풀이함을 의미한다. 결국 죽음 역시 이러한 삶의 방식에 걸맞게 렉의 시신은 강물을 맴돌고 흘러 아무도 렉의 신분을 모르는 곳에서 멈춘다. 렉의 시신은 온갖 번뇌를 강물에 흘려보내고 편안한 표정으로 다른 10구의 시신과 함께 나란히 강둑에 놓인다.

## 2. <유정>

<유정>은 춘원이 동아일보사에서 조선일보사로 자리를 옮기고 난뒤 1933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선일보에 연재한 소설이다. 춘원의 작품 중에는 결말이 주인공의 죽음으로 처리된 공통점을 보이는 작품들이 있다. <유정>은 남자 주인공의 죽음으로 결말을 이룬다. 이것은 다른 작품, 즉 <개척자>(1917)의 성순의 자살, <재생>(1924)에서 순영의 자살, <혁명가의 아내>(1930)에서 방정희의 죽음, <사랑의 다각형>(1930)에서 송은희의 자살, <애욕의 피안>(1936)에서 김혜련의 죽음 등 결말이 여주인공의 죽음으로 처리된 것과 다른 점이다. <유정>에서는 남자 주인공인 최석이 죽고, 여주인공인 남정임은 단지 죽음이 암시되어 있을 뿐이다.

<유정>은 1인칭 서술 형식으로 ‘나’라는 인물이 최석의 편지를 공개하고 ‘나’의 생각을 이야기한다. 편지, 일기 등 고백적인 요소가 짙은 양식을 채택하였다. 소설의 주제나 제재가 사랑이나 죽음일 때 1인칭 고백적 양식을 주로 사용한다.

내용을 보면 주인공 최석의 편지, 자서전의 일종을 소개하는 '나'의 서술이 두쪽 정도된다. 최석은 세평처럼 그렇게 추한 사랑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독자의 동정심에 호소하였다.

바이칼 호수 근처로 도피한 친구 최석의 편지 내용은 53쪽에 걸쳐 소개되었다.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함께하던 남백파와 그의 중국인 아내 사이에서 낳은 남정임을 맡아 기르게 되는데, 정임은 성장하면서 미모가 뛰어나고, 또 아버지뻘되는 연령인 최석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꼈다. 정임이 일본유학중 병으로 앓아누운 소식을 접하고 최석은 일본으로 달려가 정임에게 수혈을 한다. 최석의 아내는 정임의 일기장을 보고나서, 남편과 정임 둘 사이를 오해하게 되었다. 질투심에 휩싸여 남편에 대한 험담을 해댔고 그것이 신문에 기사화되어 최석은 애로 교장이라고 빈정대는 소리를 건디다 못해 결국 학교를 그만두었다. 자신의 재산을 정리한 후 다시 일본에 건너가 정임을 만나는데 이때 정임의 사랑고백에 갈등을 느꼈다. 그러나 최석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자 시베리아로 떠났다. 바이칼호수로 가던 도중에 R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도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여 문제가 된 여학생과 결혼을 하고 조선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최석은 감각적 사랑의 감정을 극복하고 바이칼호에서 더 멀리 들어가 죽음을 맞겠다고 결심한다.

편지를 받고나서 '나'가 최석을 찾아가려는데 최석의 딸 순임과 일본에서 건너 온 정임이 함께 아버지를 찾아가겠다고 해서 '나'가 그들의 여행길을 도와주는 이야기가 13쪽 정도 전개되었다. 최석을 만나서 그의 일기장을 읽어 보는 내용이 3쪽 정도되고, 결말은 최석의 죽음에 임해 '나'가 겪은 일이 4쪽 정도다.

이러한 구조는 일종의 액자소설, 격자소설에 해당된다. 이는 작가의 개입을 줄이고 작품의 예술성에 신경 쓴 수법이다. 1인칭 서술 형식은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는데, 액자소설의 구성법을 쓰고 있어서 객관적인 거리유지에 성공하였고, 제재 자체가 1인칭 서술로 쓰기에 편리한 것이다. '사랑'을 제재로 택하여 주제화 해나갈 때, 그것은 사회와 개인의 관련성에서 오히려 종교적 차원으로 승화되어 개인의 영혼 구원의 의미를 낳는다. 이것은 평면적인 사건 구조와는 별 관계가 없게되고, 따라서 내적구조를 형성하게 되는데, 구조가

‘외적 면모에서 내적 의미’로 치중되는 것은 현대소설의 한 특징이 된다.

구인환(1983, 196)은 1인칭 소설의 기법과 일기, 편지 등 고백적 성격의 기법을 채택하여 사랑과 죽음을 중심 주제로 하여 작품을 구성했음에도 표면적이라는 느낌이 드는 것은, 여행의 방식을 아울러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야기의 구성이 여행의 방식을 따르는 것은 설화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여행구조를 소설구조에 대입시킬 경우 그 효과는 시간적인 이야기가 공간화함으로써 다양한 사건의 전개가 가능하다. 또한 흥미유발을 위한 요소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낼 수 있다. 삶이라는 것 자체가 길로 비유될 수 있고, 길의 양상에 따라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여행의 구조로 된 소설은 행동소설이라고도 하는데, 단점을 지적하자면 구조 자체를 설화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점이다. 구인환(1983, 196)은 행동소설의 구조로 되어 있는 작품은 인간 영혼 혹은 심리의 내면을 파헤치는데 그다지 효과적이지는 않다고 보았다.

〈유정〉에는 세가지 형태의 여행일정이 그려져 있다. 최석의 여행은 서울-동경-하르빈-바이칼호반-이르쿠츠크의 삼립으로 연결되었다. 정임과 순임(순임은 서울부터)은 동경-서울-봉천-시베리아-바이칼호-이르쿠츠크의 삼립가지이다. 한편 ‘나’의 여행은 서울-봉천-서울-시베리아-이르쿠츠크의 삼립으로 최석과 그를 찾아간 순임과 정임을 만나러 갔다.

여기서 ‘나’와 순임은 출발지로 되돌아오는 원점회귀 여행이고, 최석과 정임은 직선적인 여행으로 여행의 끝과 소설의 결말이 일치한다.

최석에게 있어서 서울은 질투심에 눈이 멀어 험담을 일삼는 부인이 있는 곳으로 교육자로서의 위신과 체면을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전근대의 상징이다. 그래서 그는 서울을 떠났다. 이유는 갑작스런 사건의 충격과 양심에 가책이 될 만한일을 한 적이 없음에도 아내, 자식, 동료로부터 받는 불신에 실망을 느낀 탓이다.

양심의 가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것은 일종의 도피행각이다. 정임이 있는 일본이 도피처가 될 수는 없었다. 오히려 자신의 내부에서 솟아오르는 사랑의 본능적 감정에 당황하여 그자리를 벗어나 바이칼호로 떠났다. 도중에 하르빈에서 만난 R 부부의 사연이 전개되는 것은 도식적이라는 점도 있지

만 소설 구조에 유기적으로 이용되는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다. 자기가 봉직하던 학교의 여학생과 사랑을 나누다가 학교에서 쫓겨나고 정사(情死)를 하려고 죽을 자리를 찾아 헤매던 중 별이 빛나던 밤에 함께 죽을 무덤을 파다가 강렬한 삶의 충동이 일어 범열(法悅)의 경지에 이르면서 다시 삶을 약속하고 함께 살게된 사연이다. 그들이 봤던 '두 별 무덤'이야기에 대해 최석은 거부감을 느꼈다. 그는 바이칼호를 찾아가고, 또 거기서 더 깊은 오지로 들어가 칩거를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였다. '나'는 최석이 죽은 후 거기에 남아있던 정임이 혹시 죽게되면 다시 찾아가서 '두 별 무덤'을 만들어 주겠다는 정도로만 상징하는 것으로 끝냄으로써, '나'는 어디까지나 작중화자에 머무르도록 하는 기법을 채택하였다.

사랑에 대한 자세, 사랑을 이해하는 주제의 심도와의 관련이 눈에 띈다. 최석이 서울을 떠나고, 세상을 떠나 죽음의 길로 향한 이유와 R씨 부부의 사랑의 결합에 거부감을 보인 것과의 관계이다. 최석이 정임에 대해 갖는 사랑의 감정은 일종의 이데아로서 매우 추상적이고 이념적이다. 이에 비해 R씨는 당시 총각의 신분에서 여학생과 스캔들을 일으켰고, 또 자손을 번성시키고 그것도 모세나 단군같은 자손을 꿈꾸는 속세적 태도가 최석의 경우와는 전적으로 상반된다. 이러한 점은 다음과 같은 대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람의 마음에 비기면 저까진 별들이 다 무엇이요?’ -나는 참 놀랐습니다. ‘어째서 사람의 마음이 하늘보다 더 이상할까’ 하고 내가 물으니까, 그 대답이 ‘나는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가 없지만, 내 마음 속에 일어나는 것이 하늘이나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알 수 없고 더 뜨겁고 그런것 같아요’ 그러겠지요. 생명이란 모든 아름다운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어요, 그 말에.- ” (이광수 1968a, 85-86)

‘우리 삼시다. 죽지 말고 살아서 새 세상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이광수 1968a, 89)

최석이 이러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뒤로하고 떠난 것은 사랑의 절대성을 추구하고자 한 때문이었다. 사랑의 절대성 추구는 죽음의 결말을 향하여 치달

는 직선구조로 되었다. 이러한 최석의 여행구조에 정임의 여행구조는 평행선을 이루고 있다. 절대 혹은 이상을 추구하는 사랑의 결말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 이 소설에서 직선적인 죽음의 결말구조를 낳은 이유를 알아보자. 종교적인 초월이나 영혼의 구제를 암시하는 이 소설에서 최석의 성격이 문제이다.

“정보다는 지로, 상식보다는 이론으로, 이익보다는 의리로 살아왔다고 자신 하오. 이를테면 논리학적으로, 윤리학적으로 살아온 것이라고나 할까. 나는 엄격한 교사요, 교장이었소.” (이광수 1968a, 91)

위와 같이 ‘정보다는 지’로 살아왔던 최석의 자아에 변화가 생긴다. 사랑의 본능적 충동이 선이나 악이나 하는 문제에 봉착하여 갈등을 느끼다가 “내 속에서 두 세력이 싸우다가 승부가 결정된다면 나는 승부의 결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살기를 그만 두려하오”(〈유정〉1968, 92)하고 결심하게 된다. 이는 논리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논리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최석에게 해탈이란 있을 수 없다. 사랑은 절대라는 생각으로 극기의 길, 자기희생의 길을 간다.(구인환 1983, 199)

#### IV. 주제 및 사상의 비교

두 작품은 성격상의 차이로인해 죽음에 도달하기까지의 길이 달리 나타난다. <탄차이렉>의 주인공 렉과, <유정>의 주인공 최석은 각각 인생역정이 다르다. 이러한 차이점은 성격에서부터 비롯된다. 우선 렉은 정이 풍부하고 눈물이 많은 사람이다. 반면 최석은 ‘정보다는 지’에 의존해 살아 온 사람이다. 이런 성격상의 차이로 인해 각각 자신의 터전인 방콕, 서울을 떠난 이유가 다르다.

첫째, 렉은 왕족이라는 신분의 굴레에 썩어 일반 사람들과 어울리지를 못하고 늘 외톨이라서, 외로움을 탄 나머지 방콕을 떠났다. 반면 최석은 교장의

신분으로서 자기의 도덕성을 의심하는 이들에 대해 환멸을 느껴서 서울을 떠났다.

둘째, 죽음으로 향하는 여행의 끝점도 다르다. 렉은 원점회귀 여행구조로 방쪽으로 향하던 길이었고, 최석은 직선 여행구조로 오지로 향했다. 렉은 돌고도는 윤희의 의미가 있고, 최석은 곧장 자기희생의 죽음을 향해 직선적으로 가는 점에서 기독교적 의미에 가깝다.

셋째, 죽음의 길이 우연이나 자발이나 하는 점이 서로 다르다. 렉은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섞여 끼어앉아 가다가 여객선 침몰로 인해 우연한 사고사를 당한 반면, 최석은 병이 든 가운데 오지로 향해 자발적 죽음의 길을 택한다. 현대 이 우연, 자발의 문제는 여행을 떠날 때도 서로 다르다. 렉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논을 상속받는 바람에 우연한 기회를 얻어 떠난 것이고, 최석은 자신의 재산 정리를 하고나서 자발적으로 떠난 것이다.

넷째, 죽는 장소가 서로 다르다. 렉은 강물에 익사하여 유동적이고, 최석은 눈덮인 오지를 배경으로 하여 죽어 고정된 느낌을 준다. 여기서 두사람의 공통점인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 렉은 물로, 최석은 흰눈으로 상징되었다.

다섯째, 사랑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렉은 독신으로서 일생의 반려자와 함께 어우러져 울고, 웃을 수 있는 사랑을 원했고, 최석은 유부남으로서 사랑의 절대성을 추구하며 이데아를 좇아 관념적 사랑을 꿈꾸었다.

마지막으로 렉은 외로움을 탄 나머지, 아무도 자신의 신분을 모르는 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새 삶을 시작하고자 했고, 최석은 자신에 대해 오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로 인해 사람을 싫어해서인지, 사람이 없는 오지로 더 깊이 들어갔다.

렉과 최석의 공통점은 죽음을 통해 살아생전의 고통이 해결되고 종교적 구원을 얻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어우러져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생각한다. 소설 속에서는 늘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 두 소설은 선량한 두인물이 사회 질서 유지차원의 희생양이 되어 죽게되는데, 이 죽음이 반드시 생전의 악업의 결과만은 아니고 선업의 결과 일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두사람의 공통점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양심의 가책을 받을만한 일

을 하지 않았지만 높은 신분이 오히려 사회생활을 더 어렵게 한다. 렉은 단정하고 예의바르며 정이 많은 사람인데, 왕족이라는 신분 때문에 일반인과 어울리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한다. 최석은 교장의 신분으로 도덕적이며 '정보다는 지'에 의한 판단을 하며 살아온 사람인데 외도라는 누명을 쓰고 명예가 실추된다.

둘째, 현실타개책으로서 문제가 발생한 곳을 떠나 방랑의 길을 택하는 점이 같다. 렉은 방콕을 떠나 시골로 간다. 최석은 서울을 떠나 시베리아로 간다.

셋째, 두사람의 도피행각의 심저에는 이성적 사고와 감정간의 갈등이 생기고 이로인해 자기모순에 빠져 헤어나지 못한 가운데 방랑의 길을 가는 점이 같다.

렉은 남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하는 성격으로, 동료들이 상사의 집에 일을 거들려고 갈 때에도 자신이 가면 오히려 대접해주기 때문에 짐이 되는게 싫어 가지않는다. 또 모친이 병들어 누웠어도 심정적으로는 자신이 나가서 돈을 벌어 병구완을 해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왕족으로서 명예가 실추되니 차라리 굶어 죽는게 낫다는 모친의 말을 거역하지 못한다. 이것은 정은 많은데도 자신의 마음 속으로도 왕족의 신분에 걸맞게 처신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일면은 벗어나고 싶고 일면은 그러지 못하는 자기모순된 갈등구조 속에서 택한 길이란 방랑의 길이다.

최석은 이성적 사고를 지닌 엘리트 교장의 신분으로 도덕적인 인물이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남의 오해를 허물 노력은 않고 환멸을 느끼며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어할 뿐이다. 또 본능적으로 정임에게 이끌리는 감정을 해결할 방법을 모른다. 이런 자기모순에 빠져 택한 길이란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넷째, 육신의 죽음뒤에야 살아 생전의 고통스런 문제가 없어졌다는 점이 서로 같다.

렉은 살아 생전 그리도 장애가 되어 따라다녔던 왕손이라는 신분의 굴레, 그래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났지만, 결국 죽어야 시신이 왕족 렉인지 아무도 아는 이가 없어 소원성취를 한셈이 되었다.

최석은 살아생전 자신의 도덕적 양심상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남정임과의

사랑이지만, 사랑의 감정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 이런 난제에서 벗어나고자 아무도 없는 오지를 택했고 최석이 죽어서야 정임은 그의 곁에 머물 수가 있었다.

다섯째, 종교적 구원, 영혼 구제의 암시가 같다.

렉은 짜오프라야 강물에 익사함으로써 모든 번뇌를 강물에 다 씻어보내고 깨끗한 몸과 마음이 되어 영혼 구제를 암시하고 있다.

최석은 눈덮인 오지에서 세사의 번뇌를 다 털어내고 눈같이 희고 깨끗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여 역시 영혼 구제를 암시하고 있다.

여섯째, 자신의 처지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과 결합하지 못한다는 점이 서로 같다. 렉은 가난한 왕족이라는 신분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을 얻지 못한다. 최석은 유부남의 처지로 딸같이 어린 여자와의 사랑을 이룰 수는 없었다.

## V. 결론

크릿 뿌라못의 소설 〈탄차이렉〉과 춘원 이광수의 소설 〈유정〉을 비교해 본 후, 이 두 작가의 삶의 역정과 비교하면 흥미로운 점이 많다.

크릿은 태국 근대화를 훌륭히 이끈 영도자로 추앙받는 라마 5세가 서거한 다음해인 1911년에, 부친이 전근발령과 함께 라마 5세의 왕비의 수행원으로 임하며 온 가족이 여행하던 중 배안에서 왕가 혈통을 이어받은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다. 이때 왕비의 축복을 받으며 '점점 힘 세지는 자'라는 뜻이 있는 크릿이라는 이름도 하사받았다. 춘원은 국가적으로는 이씨 조선 오백년의 끝 무렵에 집안으로는 망해가는 때에 만득자로 태어났다.

크릿은 1932년 입헌혁명으로 절대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 바뀐 가운데 왕족출신으로 그 현장을 목격하며 살아갔다. 춘원은 1910년 이씨 왕조가 망하고 일제 통치하에 놓인 조국의 현실 속에서 살아갔다.

크릿은 너무 일에 몰두한 나머지 결혼 생활에 금이 가서 결혼 7년만에 아내와 이혼을 하고나서 계속 독신으로 지냈다. 춘원은 첫부인과 이혼한 후 재혼을 감행하여 사랑을 완성하였다.



두 작가 다 서양제국주의와 일본 군국주의의 영향하에서 전통과 근대의 간극 사이에 끼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살아갔다.

크릿은 태국 수상도 역임하는 등 정계에 발을 들여놓는 한편, 각 장르에 걸친 문필가로서의 길을 걸으며 독설가라는 흑평과 직언거사라는 호평을 들으며 살다가, 1995년 친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생을 마감하였다. 춘원은 해방후 친일파로 취급되어 곤경을 겪고 1950년 동족상잔의 와중에 납북된 후, 정확한 삶의 역정은 알려지지 않은채 소문만 분분한 가운데 오늘에 이르렀다.

양 국가의 문단계에서 근대를 논할 때면 반드시 크릿, 춘원을 언급해야 할 정도로 이 두 작가는 뛰어난 문사들이다. 그러나 크릿은 태국 문단계뿐만 아니라 세계적 명사축에 들며 현왕조의 현인으로 추앙받는 존재이다. 반면 춘원은 친일이라는 오명 때문인지 오늘날까지도 그의 업적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비록 장르상 장편소설 중 한부분인 단편소설과 장편소설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크릿의 장편소설 <라이치윗>에 있는 <탄차이렉>과 춘원의 장편소설 <유정>을 비교해 보았다.

두 작품 모두 죽음의 결말구조를 가졌으며, 살아생전 사회질서 유지 차원의 회생양이 되어 방랑끝에 죽음으로써 고통이 해소되고 종교적인 영혼구제의 의미가 있는 점에서 일치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주인공의 성격에 따라 그 여정이 다른점이 비교연구를 통해 드러났다.

<탄차이렉>에서 렉은 정이 많고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왕족이라는 허울 좋은 신분의 굴레 때문에 늘 외로움에 떨어 울었으며, 사랑하는 여성과 결혼도 하지 못한다. 한동안 시골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동네사람과 어울려 존경을 한몸에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으나, 우연한 기회에 신분이 알려져 더 이상 시골에 머물 의미를 상실한 채 다시 방쪽으로 향하던 중 역시 우연한 사고로 익사하게 된다. 죽어서야 비로소 다른 10구의 시신들과 함께 강둑에 나란히 놓였다. 아무도 렉의 신분을 모른채 외롭지 않게 다른 10구의 시신들과 함께 공평하게 취급되었다. 원점회귀의 방랑구조와 죽음의 장소인 물의 흐

름성이 정이 많은 성격과 일치한다.

반면 '정보다 지'에 의존에 살아왔던 <유정>의 최석은 단호한 성격인데, 사랑의 본능적 감정 때문에 당황하고 갈등을 겪지만 결국 사랑의 절대성을 추구하며 자의에 따라 눈덮인 오지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직선적 방랑구조와 죽음의 장소인 눈덮인 오지의 고착성이 지적인 성격과 일치를 이룬다.

### 〈참고문헌〉

#### ◇ 자료

이광수. 1968a. <유정>. 『이광수 전집』, 8권, 16권. 서울: 삼중당.

이광수. 1968b. 『이광수 전집』, 16권. 서울: 삼중당.

크릿 뿌라못. 1986. <탄차이렉>. <라이치윗>. 방콕: 싸얌랏.

#### ◇ 논문 및 저서

구인환. 1981. "춘원문학에 나타난 기독교 사상." 신동욱 편. 『최남선과 이광수의 문학』. 서울: 새문사.

구인환. 1983. 『이광수소설연구』. 서울: 삼영사.

김윤식. 1986. 『이광수와 그의 시대』, 3권. 서울: 한길사.

박효용. 1989. "크릿 뿌라못(Kukrit Pramoj)소설작품 속에 나타난 의식세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근혜. 1997. "씨팬딘(Si Phaendin)에 나타난 여성상 연구-플레이와 뿌라파이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호병. 1995. 『비교문학』. 서울: 민음사.

장덕순. 1962. 『문학연구의 방법』. 서울: 신구문화사.

정비석. 1968. "해석." 『이광수 전집』, 8권. 서울: 삼중당.

한용환. 1994. 『이광수 소설의 비판과 옹호』. 서울: 새미.

Manivat, Vilas. 1983. *M.R. Kukrit Pramoj: His Wit and Wisdom*. Bangkok: Duang Kamol.

- Nagavajara, Chetana(나카왓차라 췌따나). 1998. *Thitthang khong Karnsueksa Wannakhadi Priapthiap*. (비교문학연구방향). Bangkok: Chulalongkorn University Press.
- Mantasut, Somphon(만따췌 췌뻐). 1979. "An Analysis of Si Phaendin and Lai Chiwid." Master's thesis, Bangkok: Sri Nakarinwirot University.
- Saisaeng, Prajak(싸이췌 뿌라췌). 1973. "Naewookidsakon Kuamtai kab Wannakhadithai." (태국문학의 죽음관). Manlayaphon, Krasae, eds. *Wannakhadi Priapthiap Buangton*. Bangkok: Rongrian Satri Netisueksa Press.
- Satawan, Supha(삿따완 췌파). 1982. "An Analysis of M.R. Kukrit Pramoj's Short Stories." Master's thesis, Bangkok: Sri Nakarinwirot University.